

經部叢刊 편찬을 위한 韓中詩經學 주요 注解書 고찰

양원석(楊沅錫)¹⁾

<목 차>

- I. 서론
- II. 중국시경학의 주요 注解書
- III. 한국시경학의 주요 注解書
- IV. 결론

I. 서론

본 연구는 한국경학학회에서 기획하고 있는 經部叢刊²⁾에 수록할 한·중 詩經學의 주요 서적을 선정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韓·中 詩經學 주요 注解書의 서목 및 그 내용, 성격, 의의 등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詩經』은 西周初期(B.C 1,100년 무렵)부터 春秋中期(B.C 600년 무렵)에 이르기까지 약 500여 년 동안 중국의 黃河 중류 中原 지방에서 노래되었던 詩歌를 모은 것으로, 중국 最古의 詩歌集이자 또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문학 작품의 鼻祖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경』에 대한 연구는 2,000여 년 이상 지속되어 왔는데,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저작으로는 『毛詩』를 기본으로 하여 三家詩를 채용한 漢 鄭玄의 『毛詩鄭箋』, 漢學 각파의 통일을 완성한 唐 孔穎達의 『毛詩正義』, 宋學 『시경』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宋 朱熹의 『詩集傳』이 있다. 이것은 詩經學史에서 분기를 이루는 저작으로, 詩經研究史의 3대 이정표라고 칭해지기도 한다.³⁾ 清代에 이르러서는 漢學宋學之爭, 古文今文之爭, 考據義理之爭 등의 다양한 경학 논쟁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저작으로는 韓宋兼採의 경향을 지닌 『欽定詩經傳說彙纂』, 그리고 獨立思考와 自由研究를 수행하며 『시경』 각 편의 本義를 탐구한 姚際恒의 『詩經通論』, 崔述의 『讀風偶識』, 方玉潤의 『詩經原始』 등이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三國時代에 이미 경서를 수용하였으며 특히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시경학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5세기 權近(1352~1409)의 『詩淺見錄』을 필

1)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 yang1st@korea.ac.kr

2) 한국경학학회에서 추진하는 經部叢刊 편찬 사업은 한국 경학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서적을 선별하여 그 선본을 마련하고 또 이를 현대 한국어로 번역함으로써 한국 경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함을 목표로 한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 경학사 이해를 위해 필요한 중국과 일본 등의 주요 경학 서적도 그 대상에 포함시킨다.

3) 夏傳才, 『詩經研究史概要(增注本)』,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2007, pp.11-12.

두로 하여, 17세기에 朴世堂(1629~1703)의 『詩思辨錄』을 주목할 수 있다. 그 이후로 李瀾(1681~1763)의 『詩經疾書』, 正祖의 詩經講義, 徐澄修(1749~1824)의 『詩故辨』, 申綽(1760~1828)의 『詩次故』, 丁若鏞(1762~1836)의 『詩經講義』, 徐有渠(1764~1845)의 『毛詩講義』, 沈大允(1806~1872)의 『詩經集傳辨正』 등이 등장하면서 조선 시경학의 다양한 특징을 드러내었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중국과 한국 시경학 연구사의 주요 내용을 재검토 및 정리하고, 아울러 각 시기에 대표적인 『시경』 주해서의 서목을 제시하면서 그 내용, 성격, 의의 등을 고찰해 보겠다. 이는 한국경학학회가 추진하고 있는 經部叢刊 편찬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中國詩經學의 주요 注解書

1. 중국시경학 연구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詩經』에 대한 연구는 2,000여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시경학 연구사에 대한 논의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즉 2,000여년 동안 진행되었던 『시경』 연구의 역사를 어떠한 특징에 따라 어떻게 구분하느냐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아래에서는 夏傳才의 견해를 중심으로 중국시경학 연구사를 정리해 보겠다.

夏傳才는 경학의 발전 및 중국 문화 발전의 단계를 고려하면서, 아래와 같이 중국시경학 연구사를 아래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① 先秦時期 : 춘추시대에 처음으로 詩 삼백편이 流傳, 應用, 編訂되었으며, 孔子는 『시경』을 중심으로 하여 儒家詩敎를 창시하였다. 공자의 詩敎 이론 및 『시경』을 둘러싼 논의는 후대 『시경』 연구의 기초 이론이 되었다.

② 漢學時期 (漢~唐) : 漢나라 초기에 詩는 ‘經’이 되어 『시경』으로 칭해지게 되었다. 今文 시경학에 해당하는 魯詩, 齊詩, 韓詩, 그리고 古文 시경학에 해당하는 毛詩가 『시경』을 해석하고 전수하였으며, 또 이들 간의 今古文 논쟁이 진행되었다. 결국 모시를 위주로 하면서 三家를 두루 채용한 鄭玄의 『毛詩鄭箋』이 금문과 고문의 통합을 이루었으며 이후 모시 위주의 시경학이 전개되었다. 이 鄭玄의 『毛詩鄭箋』은 중국시경학 연구사에서 첫 번째 이정표에 해당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어서 魏晉南北朝 시기에는 鄭學(鄭玄)·王學(王肅)의 투쟁, 南學(玄學義理)·北學(名物訓詁)의 투쟁이 있었으며, 唐初에 이르러 孔穎達의 『毛詩正義』를 통해 漢學 각 학파의 통일을 완성하였다. 이 孔穎達의 『毛詩正義』는 중국시경학 연구사에서 두 번째 이정표에 해당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③ 宋學時期(宋~明) : 宋代에 이르러 漢唐 이래의 기존 經說에 대한 異議를 제기하는 ‘疑古의 學風’이 등장하였으며, 시경학의 경우 美刺說에 기반한 詩序說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反毛鄭之學의 경향이 점차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송대 시경학의 反毛鄭之學의 경향은 朱熹(1130-1200)에 의해 계승 및 집대성되었다. 『詩集傳』과 『詩序辨說』로 대표되는 주희의 시경학은 宋代 학자들의 『시경』에 대한 새로운 탐색과 인식의 결정인 동시에 宋代의 문학사상, 도덕관념, 학술방법, 경학체계 등에 있어서 意識 형태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한 것으로, 중국시경학 연구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희의 시경학은 중국시경학 연구사에서 제3의 이정표라고 평가받고 있다.

주희의 시경학은 元 延祐년간(1314-1320)에 국가의 공인을 받아 정통 시경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元·明의 시경학은 송대 시경학의 계승이라고 평가된다.

④ 新漢學時期(清代) : 清代에 이르러 宋明理學의 학풍에서 벗어나서 漢學을 부흥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淸初의 시경학은 宋學·漢學의 通學이었으나, 점차로 한학이 송학을 압도하게 되었다. 乾嘉時期的 고압적 정치 상황은 古文經學을 위주로 하는 考據學派를 탄생시켰으며, 『시경』의 문자·음운·훈고·명물 방면에 대해 폭넓은 고증을 진행하였다. 道咸時期 이후의 사회적 위기 상황은 또한 今文學派를 탄생시켰는데, 그들은 三家詩의 遺說을 수집하고 연구하였으며 微言大義를 다시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청대의 시경학은 新漢學으로 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금문학과 고문학의 투쟁 및 한학과 송학의 투쟁을 아우르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경』 각 편의 本義를 탐구하고자 시도한 姚際恒의 『詩經通論』, 崔述의 『讀風偶識』, 方玉潤의 『詩經原始』 등이 등장하는데, 이는 ‘獨立思考派’라고 칭한다.

⑤ 五四 및 그 이후의 시기 : 1919년 五四運動 이후로 중국시경학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데, 즉 『시경』의 본래 면모를 회복하는 경향의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古史辨派는 『시경』의 真相을 드러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郭沫若是 『시경』을 현대어로 해석한 창시자가 되었고, 또 聞一多是 민속학의 방법, 문학 분석의 방법, 고증학의 방법을 결합한 시경학 연구를 진행하였다.⁴⁾

2. 중국시경학 주요 注解書

이상에서 중국시경학 연구사의 주요 내용을 夏傳才의 견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이를 참고하여 시경학사 각 시기의 특징적 국면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시경학 서적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이는 經部叢刊에 수록할 서목으로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① 『毛詩鄭箋』, 『毛詩正義』

毛亨이 傳을 달고, 鄭玄이 箋을 단 『毛詩鄭箋』은 夏傳才가 중국시경학 연구사의 첫 번째 이정표라고 언급할 정도로 漢代 시경학을 대표하는 저작이다. 이는 금문·고문 시경학을 통일

4) 夏傳才, 『詩經研究史概要(增注本)』,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2007, pp.10-15.

한 것이면서 고문시경학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의 시경학은 대부분 『毛詩鄭箋』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모시정전』에 孔穎達이 疏를 단 『毛詩正義』 역시 唐代 시경학의 대표 저작으로 夏傳才가 언급한 중국시경학 연구사의 두 번째 이정표이다. 『모시정의』에 『모시정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시정의』는 한당시경학의 대표 저작이라고 칭할 수 있다.

『모시정의』는 『十三經注疏』에 수록되어 있다. 『모시정의』의 표점정리본으로는 李學勤 주편의 『十三經注疏(標點本)』(北京大學出版社, 1999.) 및 『十三經注疏(整理本)』(北京大學出版社, 2000.)이 있는데, 이는 교감을 거치고 표점을 가한 것으로 『모시정의』의 대표적인 정리본으로 활용되고 있다.

『모시정의』에 대한 한국어 번역본으로는 전통문화연구회에서 발행한 『譯註 毛詩正義』가 있다. 2016년에 1권을 발행한 이후 2023년까지 8권을 발행하였으며(역주: 박소동, 책임번역: 임재완, 공동번역: 김문순, 김용미, 백광인, 김철근, 김명환), 앞으로 15권까지 발행하여 완역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② 朱熹 詩經學 관련 저술 : 『詩集傳』, 『詩序辨說』, 『朱子語類』, 『詩傳遺說』

주희 시경학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注解書로는 『詩集傳』을 비롯하여, 詩序에 대한 朱熹의 견해를 모아 놓은 『詩序辨說』, 주희와 그의 門人들간의 問答 기록인 『朱子語類』의 『시경』 관련 부분, 주희의 손자 朱鑑이 편찬한 『詩傳遺說』 등이 있다. 주희 시경학에 대한 온전한 연구를 진행하려면 이상의 ‘朱熹 詩經學 관련 저술 및 주희 문집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저술 취지와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 『詩集傳』

주희의 『시경』 저작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詩集傳』이다. 『시집전』은 주희의 詩序에 대한 관점 변화에 따라 세 차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亡佚되어 전해지지 않는 初稿本과 二稿本, 그리고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시집전』이다. 현행 『시집전』은 주희 48세(丁酉年, 1177년)에 舊說을 수정하기 시작하였으며, 49세(戊戌年, 1178년)에 저술을 시작하여, 58세(丁未年, 1187년)에 완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래 20권으로 되어 있었으며 卷首에는 「綱領」이 있었고 뒷부분에는 「詩序辨說」 1권이 부록으로 있었다. 하지만 明의 監本과 坊刻本에서 20권을 병합하여 8권으로 재편하였으며, 또 「綱領」과 「詩序辨說」을 떼어내어 수록하지 않았고, 丁酉年(1177년)에 지은 「詩集傳序」를 책 앞에 실어두었다.⁵⁾

『시집전』이 완성된 이후인 주희 59-60세의 기록 『朱子語類』 권80 71조⁶⁾에 따르면, 初

5) 현행본 『詩集傳』 서문 끝부분에 “淳熙四年丁酉冬十月戊子, 新安朱熹書.”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로 인해 『시집전』이 丁酉年(1177년)에 편찬된 것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6) 『朱子語類』 卷80 71조, “某向作詩解文字, 初用小序, 至解不行處, 亦曲爲之說. 後來覺得不安, 第二次解者, 雖存小序, 間爲辨破, 然終是不見詩人本意. 後來方知, 只盡去小序, 便自可通. 於是盡滌舊說, 詩意方活.(내가 예전에 『시경』을 해설하는 글에서 처음에는 小序에 근거하였는데 해석이 마땅치 않은 곳이 있어 억지로 해석을 하게 되었다. 나중에 타당치 않음을 깨닫고 두 번째 해설에서는 비록 小序에 근거하였지만 간혹 이것의 오류를 지

稿本은 詩序說에 근거한 것이고, 二稿本은 詩序說을 따르되 종종 詩序說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며, 현행본은 反詩序의 입장에서 저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王懋竑의 『朱熹年譜』에서 “先生의 손자 朱鑑의 『詩傳遺說』 注에 이르기를, 「詩傳舊序」는 丁酉년에 先生이 小序로써 『시경』을 해석할 때 지은 것이며, 나중에는 小序를 모두 버렸다.”⁷⁾라고 하여, 丁酉년에 작성한 「詩集傳序」는 주희의 시경관이 완전히 확립되기 이전의 舊序이며 나중에는 小序를 배척하는 입장이었음을 밝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시집전』은 각 시편에 대한 주희의 주석과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詩句에 대한 훈고를 비롯하여 각 시편의 篇旨에 대한 설명이 담겨져 있다. 주희는 경전 해석에 있어서 義理와 訓詁를 동시에 중시하였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⁸⁾ 『시경』 해석에서도 먼저 詩句에 대한 훈고를 진행한 후에 각 시편의 뜻을 찾고자 하였다.

『시집전』에서 볼 수 있는 주희 注解의 가장 큰 특징은 諸家の 說을 두루 수용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시집전』은 宋學 『시경』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⁹⁾

『시집전』의 대표적인 한국어 번역본으로는 성백효의 『懸吐完譯 詩經集傳 上·下』(전통문화연구회, 1999), 박소동의 『懸吐完譯 詩經集傳 上·中·下』(전통문화연구회, 2019)가 있다.

○ 『詩序辨說』

『詩序辨說』은 朱熹가 『시경』 각 편의 詩序를 經으로부터 분리하고 다시 하나로 병합하는 동시에 그 설의 得失을 변석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8권본 『시집전』이 만들어지면서 『시서변설』은 독립된 책이 되었다.

편찬 시기를 살펴보면, 『朱子語類』 권80 34조의 “지금 『시집전』을 지어 시를 앞에 배열해 놓고 나서 (詩序는) 뒤로 몰아 따로 한 곳에 있게 하였다.”¹⁰⁾라는 기록, 그리고 『시서변설』에서 종종 “說見本篇”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本篇이 『시집전』을 가리킨다는 점 등을 통해, 『시서변설』은 『시집전』이 작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주자어류』 권80 34조의 내용은 주희 59세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58세(1187년)에 완성된 『시집전』에 비해 『시서변설』이 조금 늦게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적하였는데 여전히 시인의 본 뜻을 얻을 수 없었다. 나중에 小序를 모두 버려야만 시의 뜻이 通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舊說을 모두 찢어버리자 시의 뜻이 살아났다.”

7) 王懋竑, 『朱熹年譜』, “先生孫鑑詩傳遺說注云, 詩傳舊序, 此乃先生丁酉歲用小序解經時所作, 後乃盡去小序.”

8) 李曉東은 宋明理學을 ‘純義理派’, ‘象數派’, ‘重訓詁的義理派’, ‘心學派’로 분류하고 있는데, ‘重訓詁的義理派’의 대표적 학자로 朱熹를 들고 있다. (李曉東, 『經學與宋明理學』, 『中國經學史論文選集·下』, 臺北: 文史哲出版社, 1992, pp.10-12.)

9) 黃忠愼은 주희 시경학에 대한 前人 및 今人の 평가를 소개하였는데, 여기에는 주희가 宋學 『시경』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였다는 諸家の 評이 다수 보인다. (黃忠愼, 『南宋三家詩經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8, pp.246-264.)

羅英俠는 주희 『시집전』의 訓釋이 가지는 특징으로 前代 各家의 설을 수용하면서 또한 宋代 『시경』 연구 성과를 광범위하게 흡수하였다고 평가하였다. (羅英俠, 『集大成: 朱熹詩集傳的訓釋特色』, 『中州學刊』 2007年第4期(總第160期), 2007, pp.243-245.)

夏傳才是 漢學에 대한 宋學의 비판 및 宋學의 고증학 흥기의 기초 위에서 宋學의 『시경』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것이 주희의 『시집전』이라고 평가하였다. (夏傳才, 『詩經研究史概要(增注本)』,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2007, p.114.)

10) 『朱子語類』 卷80 34條, “見作詩集傳, 待取詩令編排放前面, 驅逐過後面, 自作一處”

주희는 『시서변설』의 「서문」에서 詩序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 『시서변설』을 편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¹¹⁾ 즉 詩序를 經文에서 분리시켜 별도의 기록으로 모으는 것이며, 또한 詩序의 得失을 논하고 그것의 오류를 변증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詩의 義理를 해치며¹²⁾ 聖經의 본뜻을 어지럽히는¹³⁾ 詩序의 폐해를 막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주희는 反詩序說의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시서변설』의 첫 부분은 『毛詩』의 大序를 수록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說見綱領’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이어 「小序」라는 제목 하에, 「關雎」편부터 각 시편의 小序를 수록하고 이에 대한 辨證을 진행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시편에 대한 小序의 해석에 異見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小序의 해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小序의 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주희의 反詩序說의 입장이 강하게 제시되어 있고, 이를 통해 각 시편에 대한 주희의 견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으므로, 주희 시경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고해야 할 주해서라고 하겠다.

전통문화연구회에서 2019년에 발행한 『懸吐完譯 詩經集傳 下』에 부록으로 『詩序辨說』의 한국어 번역(역자 박소동)이 수록되어 있다.

○ 「朱子語類」

『朱子語類』는 주희와 그의 門人間에 주고받았던 問答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편찬한

- 11) 『詩序辨說』 「序文」, “詩序之作說者, 不同. 或以爲孔子, 或以爲子夏, 或以爲國史, 皆無明文可考. 唯後漢書儒林傳以爲衛宏作毛詩序, 今傳於世, 則序乃宏作明矣. … 故此序者, 遂若詩人先所命題, 而詩文反爲因序以作. 於是, 讀者轉相尊信, 無敢擬議, 至於有所不通, 則必爲之委曲遷就, 穿鑿而附合之. 寧使經之本文縲戾破碎, 不成文理, 而終不忍明以小序爲出於漢儒也. 愚之病此久矣, 然猶以其所從來也遠, 其間容或直有傳授證驗而不可廢者, 故既頗采以附傳中, 而復并爲一編以還其舊, 因以論其得失云.” (詩序의 작자에 대한 설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孔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子夏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國史라고 하지만 모두 고찰할 수 있는 분명한 문헌이 없다. 오직 『後漢書』 「儒林傳」에서 衛宏이 毛詩序를 지어 지금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고 하였으니, 詩序는 衛宏이 지은 것이 틀림없다. … 그러므로 이 詩序는 마침내 시인이 먼저 제목을 정한 것처럼 되었고, 詩文은 도리어 詩序로 인하여 지어진 것처럼 되었다. 이에 독자들이 서로 존송하고 믿어 감히 의론하지 못하고, 통하지 않는 바가 있게 되면 반드시 이리저리 맞추고 穿鑿附會하게 되었다. 經의 본문이 비틀어지고 어긋나며 깨지고 조각이 나서 文理를 이루지 못할지언정 끝내 小序가 漢儒로부터 나왔음을 차마 밝히지 못하였다. 나는 오랫동안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여겼지만, 詩序가 만들어진 것이 오래되었고 그 중에는 간혹 정말로 證驗이 전수되어 폐할 수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못 그것을 취하여 『詩集傳』 중에 넣고 다시 한 편으로 병합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환원시키고 그 得失을 논하였다.)
- 12) 『詩序辨說』 「鄭風·狡童」, “大抵, 序者之於鄭詩, 凡不得其說者, 則舉而歸之於忽. 文義一失, 而其害於義理, 有不可勝言者. … 凡此皆非小失, 而後之說者, 猶或主之. 其論愈精, 其害愈甚, 學者不可以不察也.” (詩序가 鄭風의 시에 대해 그 마땅한 해설을 하지 못하니, 시편의 내용과 상관없이 들어서 忽에게 돌리고 있다. 시문의 뜻을 한번 잃으면 그것이 義理에 해를 입히는 것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 이러한 詩序의 오류는 작은 실수가 아니어서, 뒤의 해설하는 자가 오히려 그것을 주로 삼을 수도 있다. 시서의 논의가 더욱 정밀할수록 그것의 폐해는 더욱 심하니, 학자들은 고찰하지 않을 수 없다.)
- 13) 『詩序辨說』 「鄭風·有女同車」, “後之讀者, 又襲其誤, 必欲鍛鍊羅織, 文致其罪, 而不肯赦. 徒欲以徇說詩者之繆, 而不知其失是非之正, 害義理之公. 以亂聖經之本指, 而壞學者之心術, 故予不可以不辨.” (뒤의 독자들은 또한 詩序의 오류를 답습하여 詩序의 주장을 반드시 단단하게 잘 짜여지도록 하여 문장에 죄를 입게 하는데 이르게 하면서도 그것을 사면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시를 해석한 詩序의 오류를 따르면서, 그것이 是非의 바를 잃고 의리의 공변됨을 해치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여 聖經의 본뜻을 어지럽히고 학자의 心術을 무너뜨리고 있으니, 내가 辨說하지 않을 수 없다.)

것으로, 주희의 文集이나 經書 注解書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어 주희의 사상과 학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현재 통행되는 『주자어류』는 1270년에 黎靖德이 편집하여 출판한 것이다. 여정덕은 李道傳이 편집한 池州刊 『朱子語錄』(1215년), 李性傳이 편집한 饒州刊 『朱子語實錄』(1238년) 등 당시에 유통되었던 여러 판본의 주희 語錄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1263년(南宋 理宗 景定 4년)에 景定本 『주자어류』를 출판하였다. 이어 1265년에 吳堅이 편집한 建州刊 『朱子語別錄』에 있는 새로운 條目을 景定本에 편입시켜 1270년에 『주자어류』를 발간하였는데, 이것이 현행본 『주자어류』의 초판에 해당한다.¹⁴⁾

『주자어류』에는 주희의 門人 97명이 기록한 주희의 語錄이 수록되어 있다. 여정덕은 『주자어류』를 편집할 때 각 개인이 기록한 어록의 年代를 모두 보존해 두었는데,¹⁵⁾ 이것은 1170년(南宋 孝宗 乾道 6년)부터 시작하여 1199년(南宋 寧宗 慶元 5년)까지의 약 30년 동안, 즉 주희 나이 41세부터 70세까지에 해당한다. 또한 이 97명 중에서 주희 60세 이후의 어록을 기록한 사람이 64인에 달하고 있다. 또 『시집전』이 1187년에 작성되었고 『시서변설』이 뒤 이어 완성된 것을 고려해 보면, 『주자어류』에는 주희의 晩年 定論이 보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¹⁶⁾

이처럼 『주자어류』에서 볼 수 있는 주희의 晩年 定論은 그의 早期 저작 중에 제시된 의견을 수정할 수 있으며, 또 『주자어류』에서 언급된 내용이 주희의 문집 중에 없거나 서술이 간략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것을 보충해 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시경론의 경우에도 『시집전』이나 『시서변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주희 晩年の 『시경』에 대한 견해를 『주자어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자어류』는 총 14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四書五經을 비롯하여, 諸子書, 철학 論辯, 巨儒들의 문집, 역사와 문학 등 주희의 학문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조목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시경』과 관련된 부분으로는 권80과 권81의 「詩」를 비롯하여, 권23의 『논어』 「詩三百章」에서 ‘思無邪’에 대한 견해를 밝힌 부분 등이 있다.

『주자어류』의 한국어 번역본으로는 『주자어류』(이주행, 조원식 등, 소나무, 2001), 『주자어류 1-4』(허탁 등, 창계, 2001) 등이 있으나, 完譯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詩傳遺說』

『詩傳遺說』은 주희의 嫡長孫인 朱鑑¹⁷⁾이 1235년(南宋 理宗 端平 2년)에 주희의 文集 및 語錄 등에서 『시경』에 관하여 논한 것 중에서 『시집전』에 수록되지 않은 것들을 모아서 6권으로 편찬한 것이다.¹⁸⁾

14) 鄭艾民, 「朱熹與朱子語類」(黎靖德 編, 『朱子語類』, 北京: 中華書局, 1986.) p.7

15) 『朱子語類』 中華書局本에는 「朱子語錄姓氏」를 수록하여 각 門人이 주희에게서 수업 받은 연도를 표기해 두었다. 또 『주자어류』의 각 조목에는 주희와 문답을 주고받은 門人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근거로 하여 『주자어류』 각 조목의 연도를 추정할 수 있다.

16) 鄭艾民, 앞의 글, p.8.

17) 朱鑑: 字 子明. 南宋 徽州 婺源人. 『詩傳遺說』 6권 및 『朱文公易說』 23권을 지었음.

18) 李再薰, 앞의 논문, pp.50-51.

『시전유설』의 저술 취지는 다음의 朱鑑이 직접 쓴 「自序」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先文公의 『詩集傳』은 豫章・長沙・後山에 모두 판본이 있는데 後山本의 교열이 가장 정밀하다. 처음 탈고할 때에 音・訓에 미비한 곳이 있었지만, 刻版이 이미 완료되어 더 할 수가 없었고, 補說을 쓰고자 하였으나 마침내는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여전히 舊版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全書가 되었다. … 내가 옛날에 곁에서 모시고 있을 적에, 매번 학자들이 이 책에 대해 서로 더불어 講論하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라도 의심나는 글자가 있거나 하나라도 숨겨진 뜻이 있을 때마다 반복하여 묻고 답하며 치밀히 연구하여 반드시 마음으로 통하고 뜻이 풀려진 이후에야 그만 두었다. 지금 文集의 書問・語錄에 기재된 것이 무려 수십 백 조인데, 차례대로 모아 엮어서 ‘遺說’이라 이름하였다.¹⁹⁾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어려서부터 주희의 곁에서 『시집전』의 내용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논의하는 모습을 보았던 주감은 주희의 文集과 語錄에 기록된 『시경』 관련 기록을 주제별로 차례대로 모아서 책을 엮고 그 이름을 ‘遺說’이라고 하였다. 이는 『시집전』이 이미 판각되어 배포된 이후에 보충할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일종의 후속 작업인 셈이다.

『시전유설』은 총 6권으로, 각 권은 卷1 「綱領」, 卷2 「序辨」, 卷3 「六義」, 卷4 「國風」, 卷5 「雅」, 卷6 「頌」・「逸詩」・「詩樂」・「叶韻」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술된 각 내용에는 小注로 기록한 사람과 출처를 밝히고 있어, 주희 언술의 來源을 확인할 수 있다.

『시전유설』은 주희가 『시경』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두루 모아 편집한 것으로 『시집전』을 보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²⁰⁾ 주희의 시경학을 연구하는 데에 반드시 참고해야 할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²¹⁾

『시전유설』의 한국어 번역본은 아직 발행되지 않았다.²²⁾

③ 清代 獨立思考派：姚際恒，崔述，方玉潤

앞서 언급하였듯이, 清代에 이르러서는 漢學宋學之爭, 古文今文之爭, 考據義理之爭 등의 다양한 경학 논쟁이 있었는데, 특히 從序와 從朱의 논쟁은 청대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獨立思考와 自由研究를 수행하면서 『시경』 각 편의 본래 의미를 중심으로 시를 해석한 인물과 저작으로는 姚際恒의 『詩經通論』, 崔述의 『讀風偶識』, 方玉潤의 『詩經原始』 등을 대표로 삼을 수 있다.

19) 朱鑑, 『詩傳遺說』 「自序」, “先文公詩集傳, 豫章長沙後山皆有本, 而後山本讎校爲最精, 第初脫藁時, 音訓間有未備, 刻版已竟, 不容增益, 欲著補說, 終弗克就. 未免仍用舊版, 葢爲全書. … 抑鑑昔在侍旁, 每見學者相與講論是書, 凡一字之疑, 一義之隱, 反復問答, 切磋研究, 必令心通意解而後已. 今文集書問語錄所記載, 無慮數十百條, 彙次成編, 題曰遺說.”

20) 紀昀 總纂, 『四庫全書總目提要』 “蓋因重槧朱子集傳, 而取文集語錄所載論詩之語, 足與集傳相發明者, 彙而編之故曰遺說. … 以朱子之說, 明朱子未竟之義.”

21) 夏傳才・董治安 主編, 『詩經要籍提要』, 北京: 學苑出版社, 2003, pp.106-109.

22) 이상 ‘② 朱熹 詩經學 관련 저술’은 양원석의 「朱熹의 『詩經』 注解書 비교 연구」(『한문고전연구』 19, 한국한문고전학회, 2009, pp.134-144)의 내용을 인용・정리・수정하여 제시한 것임.

○ 姚際恒(1647~1715)의 『詩經通論』

姚際恒의 자는 立方, 호는 首源이며, 본적은 安徽 新安이다. 康熙 연간의 생원이었고, 毛奇齡과 동시대 인물이자 학문적 논쟁의 상대였다. 『武林道古錄』에 “어려서 책을 널리 읽고, 제자백가에 통달하였으며, 이후 詞章之學을 버리고 經學에 전념하였다. 오십 세가 되었을 때, ‘예전에는 결혼 후 五岳을 유람했다면, 나는 결혼 후 九經을 주석하리라’는 말을 하고서는 세속사를 끊고 14년 동안 책을 저술하였으니 그것이 『九經通論』이다.(少折節讀書, 汎濫百家, 既而盡棄詞章之學, 專事於經. 年五十曰: ‘向平婚嫁畢而遊五嶽, 余婚嫁畢而注九經, 遂屏絕人事, 閱十四年而書成, 名曰九經通論.’)”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요제항이 50세가 되었을 때부터 『시경통론』을 포함한 『구경통론』의 집필에 열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시경통론』의 가장 큰 가치는 詩序에 의존하지 않고, 주희의 集傳에도 동조하지 않으면서, 시의 원문 속에서 시의 본뜻을 추구하고자 한 점에 있다. 요제항은 自序에서 “오직 시의 편장을 음미하고, 글의 의미를 탐색하며, 이전 해석을 분별하여 옳은 것을 따르고 그른 것은 버린다.(惟是涵詠篇章, 尋繹文義, 辨別前說, 以從其是而黜其非.)”고 밝혔다. 즉 요제항은 오직 시 그 자체의 의미를 탐색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기존의 해석에 대해서는 자신의 주관에 따라 그것을 취사하겠다는 면을 볼 수 있다.²³⁾

『시경통론』은 道光 17년(1837년) 韓城 王篤 刻本, 1927년 雙流 鄭璋 覆刻本이 있다. 顧頡剛이 王刻本에 교점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1958년 中華書局本 『詩經通論』이다.

○ 崔述(1740~1816)의 『讀風偶識』

崔述의 자는 武承, 호는 東壁이다. 乾嘉 연간에 활동했던崔述은 『考信錄』을 통해 중국 역사학 방면에서 높은 위상을 확립했으며, 또 『讀風偶識』를 통해 중국시경학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최술은 姚際恒, 方玉潤과 함께 清代 독립사고파 『시경』 연구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요제항의 『詩經通論』과 방옥윤의 『詩經原始』가 『시경』 305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설한 것과 달리 최술의 『독풍우지』는 「風」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요제항과 방옥윤의 저작과 나란히 언급될 만큼 그 독창성과 가치는 인정받고 있다.

최술의 『독풍우지』는 당시 詩序 중심의 『시경』 해석을 반대하면서 시서의 오류를 비판하였으며, 또 한편으로 주희의 『시경』 해석의 오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즉 최술은 당시의 논쟁이었던 從序와 從朱의 논쟁에서 벗어나고 漢宋門戶之見을 타파하면서 ‘시에 나아가 그 뜻을 구한다(就詩求義)’는 입장을 견지했던 것이다.

『讀風偶識』는 최술의 저술을 모은 『崔東壁遺書』에 수록되어 있으며, 또 『續修四庫全書』(上海古籍出版社, 2002.)에 포함되어 있다.

○ 方玉潤(1811~1883)의 『詩經原始』

方玉潤의 자는 友石, 호는 鴻蒙子이다. 方玉潤의 『詩經原始』는 同治(1862~1874) 연간

23) 清 姚際恒, 顧頡剛 标点, 『詩經通論』, 中華書局出版, 서문 참조.

저작으로, 漢唐 詩經學 또는 宋代 詩經學의 『시경』 해석의 범주에서 벗어나 經文 자체에서 의미를 추구하고 또 詩를 가지고 詩를 논하는 방식으로 『시경』을 注解한 것이다.

方玉潤은 『시경』을 해석하고 풀이함에 시의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시경』을 읽을 때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涵泳, 諷誦, 玩味, 體會 등의 독서법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시의 ‘弦外之音’(시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을 찾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통적인 해석과 다른 새로운 해석을 많이 제시하였다.²⁴⁾

『詩經原始』는 『鴻樓室叢書』에 수록되어 있으며, 同治 辛未年에 隴東分署에서 간행된 판본이 있다. 또한 『雲南叢書』에도 수록되어 있으며, 1914년에 간행된 판본이 존재한다. 1986년에 중화서국에서 교점본 『詩經原始』를 출간하였다.

④ 聞一多의 『詩經講義』, 『詩經新義』, 『詩經通義』

20세기 접어들어서 중국에서 발간된 『시경』 연구서와 주해서로 주목되는 여러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聞一多의 『시경』 해석은 민속학의 방법, 문학 분석의 방법, 고증학의 방법을 결합한 시경학 연구라는 측면에서 더욱 중시되고 있다.

聞一다가 『시경』 연구에서 이룬 중요한 공헌 중 하나는 종합적이고 문화 중심적인 연구 방법으로 『시경』을 연구했다는 점이다. “그는 청대의 소학 대가들의 고증 방법을 계승하면서도 근대인의 과학적인 정밀함을 더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²⁵⁾ 즉 형식적인 면에서 주로 문자와 어휘의 의미에 대한 고찰과 분석을 중심으로 하였고, 내용 해석에 있어서는 현대 학문 분야의 다양한 지식과 방법을 활용하여 여러 관점과 새로운 시각으로 『시경』을 재조명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聞一다가 『시경』 연구에서 이룬 두 번째 중요한 공헌은 『시경』을 詩學의 본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즉 그는 『시경』을 유교 경전의 하나가 아닌, 문학과 예술의 본래 성격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입장에서 『시경』을 연구했던 것이다.

이러한 聞一多의 『시경』 연구 성과는 『詩經講義』, 『詩經新義』, 『詩經通義』로 이루어졌다. 『詩經講義』는 2005년 天津古籍出版社 등 여러 출판사에서 출판하였으며, 한편의 단행본으로 묶이지 않은 『詩經新義』와 『詩經通義』는 『聞一多全集』(里仁書局, 1996.)에 수록되어 있다.

Ⅲ. 한국 시경학 주요 주해서

1. 한국시경학 연구사

朝鮮時代는 朱熹의 經學이 주류를 이루었던 시대였는데, 주희의 경학을 절대시하는 분위

24) 黃忠慎, 「方玉潤《詩經原始》析評」, 臺灣師範大學 國文學系, 2010.

25) 郭沫若, 『聞一多全集』 「序文」

기는 鮮初 이래로 16세기까지 공고히 유지되었다. 조선에서의 주자학은 16세기를 전후하여 李彦迪(1491~1553), 李滉(1501~1570), 金麟厚(1510~1560) 등에 의해 독실한 탐구와 심화·발전이 이루어지면서 후진들에게 전파되었고, 17세기에 이르러서는 대외적으로 明의 멸망과 丙子胡亂을 겪고 대내적으로는 숙종 년간의 치열한 禮訟과 黨爭을 거치면서 朱子學的 명분론과 정통론은 더욱 고착화되었다. 이 당시의 주자학은 학술·사상계를 독점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선의 학술계는 17세기에 가장 폐쇄성을 띠게 되었고 경학 또한 주희의 경전해석이 절대시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희의 경전해석이 절대성을 유지하는 경직된 학문적 상황 아래에서, 이에 대한 반성적 자각과 함께 주자학의 독점적 권위에 대한 회의가 서서히 등장하게 된다. 李睟光(1563~1628), 申欽(1566~1628), 張維(1587~1638) 등에서 이러한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尹鑄(1617~1680), 朴世堂(1629~1703), 李瀾(1681~1763) 등에 계승되어 조선후기 경학연구의 새로운 변화를 추동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 18세기 이후의 경학 연구는 漢學의 수용, 漢宋折衷論, 考證學을 수용한 訓詁 작업 등 새로운 방법론이 도입되면서 그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그리하여, 詩經學의 경우 점차로 詩序가 참조되면서 毛詩說과 朱子說을 併錄하고 古今諸說도 수용하여 詩義를 發明하려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前時代에 비해 자유로운 경학 연구의 분위기 아래에서 주희의 해석에만 얽매이지 않으면서 詩篇의 義理를 정확하게 發明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양상은 또한 明·淸의 從序說 수용 및 淸의 『欽定詩經傳說彙纂』²⁶⁾, 『欽定詩義折中』²⁷⁾ 등 편찬의 영향도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후기 詩經學 및 經學 연구의 이러한 동향은 주희의 경전에 대한 이해 및 경학관이 아직까지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것에만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諸說을 수용하면서 경전을 이해하고자 하였던 학계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正祖의 詩經講義에서 논의된 다양한 學說 및 徐澄修(1749~1824), 申緯(1760~1828), 丁若鏞(1762~1836), 徐有渠(1764~1845), 沈大允(1806~1872) 등에 의해 제기된 새로운 방법론과 『詩經』 해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한국시경학 주요 注解書

한국시경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조선시대 시경학을 대표할만한 『시경』 관련 주해서는 다음과 같다.

26) 『欽定詩經傳說彙纂』 20卷 (1727, 雍正 5) : 康熙 時期의 官方『詩經』 저작. 雍正 때 반포. 『詩集傳』을 綱으로 하고, 漢唐의 舊註를 부록으로 함. 주희의 淫詩說을 비판. 宋學을 기초로 한 漢宋通學의 시경 저작이라고 할 수 있음.

27) 『欽定詩義折中』 20권 (1755, 乾隆 20) : 乾隆 時期의 官方『詩經』 저작. 鄭玄의 說에 따른 詩篇의 分章. 宋儒의 『詩經』 해설의 오류 수정이 특징임. 이 책의 발간은 주희 『시경』 해석의 공식적 수정을 의미함.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성리학자인 權近(1352~1409)의 『詩淺見錄』,²⁸⁾ 大全本 『시경』의 경문과 新註 및 小註를 대상으로 하여 吐釋과 音注의 문제 및 경학의 쟁점을 검토한 李滉(1501~1570)의 『詩釋義』, 주희의 『시경』 해석 비판의 선두에 선 朴世堂(1629~1703)의 『詩思辨錄』,²⁹⁾ 그리고 실학의 선구자 李瀾(1681~1763)의 『詩經疾書』³⁰⁾ 등이 있다.

또한 조선 후기 시경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는 正祖(1752~1800)의 詩經講義, 徐滢修(1749~1824)의 『詩故辨』, 申綽(1760~1828)의 『詩次故』, 丁若鏞(1762~1836)의 『詩經講義』, 徐有渠(1764~1845)의 『毛詩講義』, 沈大允(1806~1872)의 『詩經集傳辨正』 등이 있다. 특히 구한말에 孔敎運動을 추진하면서 今文經學 성격의 저술을 남겼던 眞庵 李炳憲(1870~1946)의 시경학 저술 『孔經大義攷-詩經』, 『詩經附註三家說考』, 『詩經補義』 또한 주목된다.

正祖의 詩經講義는 『弘齋全書』에 수록되어 있다. 『홍재전서』는 1799년과 1800년 두 차례에 걸쳐 간행된 184권 100책 활자본의 방대한 시문집이다. 이는 1998년에 민족문화추진회에 의해 완역된 바 있다. 『홍재전서』의 권64~119에는 정조와 신하들이 경서를 강독하며 문답한 ‘經史講義’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권84~92에 해당하는 것이 ‘詩經講義’이다. ‘시경강의’는 『시경』에 대한 정조의 질문과 그에 대한 신하의 대답을 엮어놓은 것이다. 기유년(1789) 경연에 선발된 丁若鏞(1762~1836), 尹寅基(1768~1848), 沈能迪(1761~?), 金義淳(1757~1821), 金履喬(1764~1832), 安廷善(1766~?)과 경술년(1790)에 선발된 趙得永(1762~1824), 崔璧(1762~1813), 宋知濂(1764~?), 李義甲(1764~1847), 鄭魯榮(1761~?), 金履載(1767~1847), 李明淵(1758~1803), 徐有渠(1764~1845), 嚴耆(1762~?), 金達淳(1760~1806), 洪秀晚(1759~?), 朴宗京(1761~?) 등이 답변하였는데, 그 내용은 총 579조이다.³¹⁾ 正祖의 詩經講義에 대해서는 이병찬의 「정조조의 시경강의 연구」(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를 비롯하여 약 20~30여 편의 선행연구가 있다.

丁若鏞(1762~1836)의 『詩經講義』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 연구가 있으며, 또한 실시학사 경학연구회에서 번역한 『역주 시경강의』(1-5)가 2008년에 도서출판 사암에서 출판되었다.

또 沈大允(1806~1872)의 『詩經集傳辨正』의 경우 김형석, 윤은숙, 성원규에 의해 번역되어 2021년에 학자원에서 출판되었고,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이루어졌다.

한편 徐滢修의 『詩故辨』,³²⁾ 申綽의 『詩次故』,³³⁾ 徐有渠의 『毛詩講義』³⁴⁾ 등은 그 중요성이 인정되며 일정한 선행 연구도 진행되었지만 아직 모두 번역된 것은 아니다. 구한말의 금

28) 이광호 외 역주, 『國譯 三經淺見錄』, 靑溟文化財團, 1999.

29) 박세당의 『사변록』에 대해서는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대학』, 『중용』, 『논어』, 『맹자』에 대한 번역을 완료했으나, 『시경』의 경우 아직 완역되지 않았다.

30) 『詩經疾書』는 최석기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되었으며 1996년 와우출판사에서 출간하였다.

31) 최종호, 「정조와 문답한 ‘詩經講義’ 연구」, 『민족문화』 57, 한국고전번역원, pp. 194-195 참조.

32) 윤선영, 「明阜 徐滢修의 《詩故辨》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홍유빈, 「明阜 徐滢修 ‘二南’ 說詩의 특징과 의미 - 『詩故辨』 <周南>·<召南>의 按說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80, 대동한문학회, 2024.

33) 선미현, 「石泉 申綽의 詩經學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34) 소감, 「徐有渠의 《毛詩講義》 연구와 역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문경학자로 특히 주목되는 李炳憲의 경우 공교운동을 주제로 하는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지만 그의 시경학 저술 『孔經大義攷-詩經』, 『詩經附註三家說考』, 『詩經補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이상에서 조선시대 시경학을 대표할만한 『시경』 관련 주해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각 서적에 대한 서지사항 및 선본 여부, 선행연구, 내용과 의의, 국역 여부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아직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한 후에 經部叢刊 수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